

##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사찰소속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

김 혜 순

동국대학교

---

### 〈요 약〉

---

본 논고는 종교성과 신행 관계를 탐색하고 다종교사회에서 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종교성과 신행이 스스로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종교의 역할 및 기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불교유아교육학적 측면에서 지향해야 할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는 현대인의 종교성이 구체적인 종교행동인 신행에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관점으로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의 종교성은 종교본연의 의미를 추구하는 내향적 성향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외향적 성향이 좀 더 강했다. 신행은 계를 지키고자 하는 지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아효능감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표변인으로서 연령, 학력, 직업유무, 불자여부는 종교성과 신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어머니들의 종교성은 신행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들의 종교성과 신행은 자아효능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종교성보다는 신행이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종교성 함양을 위한 종교교육은 종파교육 입장에서도 그리고 일반적인 교양교육 입장에서도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핵심 주제어 :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

---

---

\* 본 연구는 2008학년도 동국대학교 교비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I. 문제 제기

본 논고는 종교교육의 핵심적 목표인 종교성 함양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에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는 불교유아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종교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최근까지 우리 사회의 종교성 함양을 위한 노력이 일부 종파와 종교를 배경으로 운영되어왔다는 것은 종교교육에 관한 비판에서 자주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종교성 함양 노력이 교육대상자들의 영성(靈性)개발과 종교적 이해를 확충시키는 일에서 벗어나 종교적 편향을 조성하는 경향 때문이다<sup>1)</sup>. 이에 종교성의 역할과 기능을 특정종교로서의 종교행동인 불교적 신행과 현대인의 삶의 정체감이며 존재감과 관련되는 중요한 심리영역에서 규명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종교성 함양이라는 종교교육의 당위성을 현실에서 직접 확인하는 의미를 지닐 것이며 동시에 불교유아교육학이라는 새로운 응용불교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교육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인간 내면에는 종교를 추구하는 심리적 특성인 종교성이 있다. 이 경우 종교성은 특정 종교에 관한 교리체계와 태도라기보다는 본질 체험에 기초한 인간의 자유로운 종교적 성향을 의미한다.<sup>2)</sup> 그러나 흔히 성숙한 인격 또는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의 종교성이 보다 더 잘 발달되어 있다<sup>3)</sup>고 한다. 이는 곧 개인내 또는 개인간 종교성에 차원이 존재함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은 종교의 세속화로 스스로를 특정 종교인으로 표방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거의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종교인들이 증가하는 사회적 특성<sup>4)</sup>을 해명하며 나아가 종교의 다양한 기능적 역할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종교성이 곧 구체적 종교행동에서의 차이를 이끌어내는 근원이라는 점도 시사한다.

신행은 모든 종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의 힘<sup>5)</sup>으로서의 종교의 역할과 기능이 신행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성이 구체적 종교행동으로서의 신행에 영향을 준다면 종교성 함양을 위한 각 종파 및 종교의 노력은 신

1) 고진호,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위한 방향 탐색」, 『종교교육학연구』제 23권, 2006,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7-30쪽.

2) 위의 글, 18쪽.

3) 정신적 관심의 다양성,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찰력, 우주적 관심, 통일된 인생철학의 소유 등으로 인해 각자의 종교성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Allport, 1937; Paul Tillich, 1957; Allport & Ross, 1967. 특히 Allport와 Ross(1967)는 외향적 종교성향은 도구적이며 실리적인 가치로서 종교를 파악하는 것이 되며 내향적인 종교 성향은 종교 신조를 따라 그것을 내면화하고 온전히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심리적 성숙 정도와 관련지음.

4) Wilson, 「종교성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박재연 재인용,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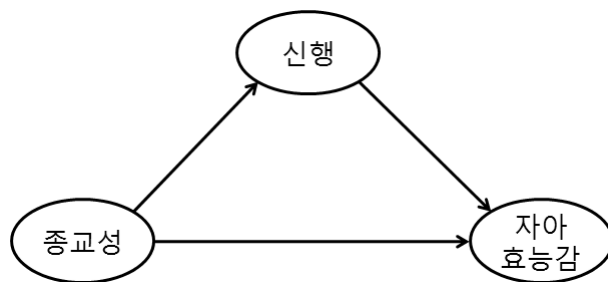
5) 동국대학교 불교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사상의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2005), 22쪽.

행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 된다. 더 나아가 종교성이 개인 삶의 주요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라는 자아효능감(self-efficacy)<sup>6)</sup>을 주목할 수 있다. 자아효능감은 수많은 삶의 문제에 부딪히는 현대인들의 심리적·정서적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종교성은 자기 자신의 종교행동 및 생활적 가치에 모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서양에서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을 뿐 국내연구에서는 빈약하다고 할 수 있고 더욱이 불교유아교육학적 관점에서 시도된 경우는 매우 희소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종교성 발달의 중요성과<sup>7)</sup> 유아의 발달과업 중의 하나인 자아효능감 발달에 어머니가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sup>8)</sup>을 함께 고려하여 유아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종교성 함양과 신행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연구문제〉

1.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2.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3. 종교성이 신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6)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37, 1977, pp. 122-147.

7) 권은주, 「불교생명존중사상의 유아교육적 적용」, 『아동권리연구』4(2)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2000); Fowler, "Studies of Faith Consciousnes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2, 1991.

8) 정선일, 「어머니의 자아효능감과 자녀의 자아효능감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 10-55.

## II. 이론적 배경

### 1. 종교성과 신행

흔히 종교성을 종교적 성향 또는 종교적 정향으로 알고 있지만 종교성에 관한 정의는 비교적 다양하게 제기되어왔다. 여러 종교성에 대한 정의들은 특정 종교의 색채나 성향을 띤 종교적 성향으로 보는 유형과 인간 본연의 내적 성향으로서의 보편적 의미를 강조하는 유형으로 크게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교성을 각 종교로서의 본래성과 함께 종교적 일반현상에 대한 보편적 인식으로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sup>9)</sup>는 보다 진보된 통합적 관점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종교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신앙체제라는 용어가 있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종교행동이 신앙체제를 모태로 해서 일어난다<sup>10)</sup>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체제는 기복종교로서의 활동을 파생시키는 신앙체제단계에서 점차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체제단계로 옮겨간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종교성이 보편적 인간심리로부터 발현되어 점차 구체적 종교행동으로 옮겨가는 신앙체제의 특성을 나타내며 동시에 신앙체제의 단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올포트와 로스(G.W. Allport & J.M. Ross)와 같이 신앙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종교성향을 개인의 심리적 성숙도와 관련짓기도 한다.

Allport와 Ross는 종교성의 차원을 종교지향적인 내향적(intrinsic) 개념과 도구목적적인 외향적(extrinsic) 개념으로서 분류하고 이러한 종교성에 따른 경험적인 종교행동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즉 내향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의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인 반면, 외향적 종교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대인적 친목 등의 도구적 목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개념화된다.<sup>11)</sup> 이들의

9) 고진호, 〈전개논문〉 21쪽, 종교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특정종교의 종교로서의 본래성을 의미하는 것과 둘째는 보편성의 측면에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종교적 일반현상에 대한 인식이지만 이 둘은 연접관계에 있다고 보고된다.

10) 岸本英夫, 박인재 역, 『종교학』, (서울: 김영사, 1961). 종교행동을 일으키는 선행요소로서의 심적자세로서 신앙체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곧 종교성의 정의와 유사하다. 신앙체제는 제 1유형인 청원태, 제 2유형인 회구태, 제 3유형인 체주태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신앙체제가 단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성격을 갖는다. 청원태는 일반적인 통속신앙의 기반이 되는 신앙체제이고, 다음 단계인 회구태는 종교적 가치체제의 재편성으로 인해 일상의 문제에서도 자신의 의미 부여나 가치 부여가 종교적으로 바뀐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인 체주태는 일상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도 궁극적 가치를 직관적으로 체득하고자 하는 신앙체제이다.

11) G. W. Allport & Ross(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고진호, 앞의 글, 20쪽 재인용. 종교인의 신앙태도가 종교성을 형성하는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수단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비본질적 종교성으로, 종교적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특성을 본질적 종교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종교성 개념을 연구적으로 사용한 선행연구들<sup>12)</sup>에 의하면 종교성에 따른 기독교인의 종교행동 차이가 뚜렷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각자의 종교성이 종교행동에 선행하는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으로서 유의한 종교행동의 차이를 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교성의 유형에 따라 기독교 종교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처럼 불교 신행에 있어서도 차이를 유발시킬 것으로 가정된다. 이와 같은 종교성향의 개인적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일반적인 접근으로서 성·연령 또는 기질적인 것을 포함한 개인적인 조건과 함께 가족을 포함한 사회 환경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밀한 접근은 본 논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물질문명의 끝없는 추구라는 현대사회는 역설적으로 종교의 필요성과 가치를 더욱 증가시키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끝없는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의 변화와 어려움에 봉착한 현대인들이 갖는 심리적 불안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라는 귀의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 개인이 존재하는 사회 환경은 결국 종교성이라는 보편적 인간심리라는 특성 안에서도 차원을 달리하는 종교성향을 만들고 그에 따라 다른 유형의 종교행동을 표출하게 만드는 거시적 조건이 되어 간다고 보겠다.

각 종교행동으로서의 신행이 종교 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전통적으로 동서양이 다르다. 신행이란 각 종교에서 신도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적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종교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절대자에 대한 복종 내지는 헌신적 예배의 측면에 가까운 서양종교에서의 신행보다 윤리적·도덕적 명령에 가까운 측면을 갖고 있는 동양종교에서 신행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이는 동서양의 문화적 전통의 조건차이에 어느 정도 기인하나 무엇보다 신(神) 중심의 서양종교체계와 달리 동양종교는 신을 내세우지 않고 인간 마음의 개조를 중시하는 종교체계로서 신앙체제 형성의 관건을 수행에 두어 왔기 때문이다<sup>13)</sup>. 특히 불교에서는 신행을 강조한다. 이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완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실천적 수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 등의 선종의 발전 역시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의 특성이다. 이밖에 불교에서는 수행을 위한 근본 가르침으로 계, 정, 혜의 삼학과 육바라밀행, 팔정도 등을 강조한다. 특히 육바라밀행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살의 실천덕목으로서 대승경론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이는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지혜(智慧)로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자리(自利)행동과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의 향상을 꾀하는 이타(利他)행동을 뜻한다.<sup>14)</sup> 이에

12) Allport & Ross(1967)의 종교성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종교성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의 종교행동이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허찬, 『종교성향,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Gorsuch & Aleshire, "Christian Faith and ethic Prejudice: A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Research",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3, 1984.

13) 岸本英夫, 박인재역, 『종교학』 (서울: 김영사, 1961). 83-85쪽.

본 연구에서는 불교에서의 신행에 관한 구체적 가르침인 육바라밀의 내용으로 신행생활을 풀이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한 개인의 종교성과 신행은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고, 종교성에 따라 구체적 종교로서의 불교 신행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2. 자아효능감

Bandura<sup>15)</sup>(1977)에 의하면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이란 넓게는 자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지각이다. 이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혹은 자기 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각된 효능성(perceived efficacy), 혹은 자기효능성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belief or expectation of self-efficacy)라고 부르기도 한다.<sup>16)</sup> 또한 Pintrich와 Schrauben은 자아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자신의 성취 수행을 자주 점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7)</sup>. 이와 같이 개념화 되는 자아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가 됨<sup>18)</sup>으로써 성공적인 삶의 성취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달되어야 할 중요한 요건이 된다. 아동들의 자아효능감을 연구한 Pintrich와 DeGroot에 의하면, 자신이 유능하다고 믿는 학생들은 인지전략을 사용하고 메타 인지전략 사용과 관련된 자기조절학습을 하고, 어렵거나 재미없는 학습과제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임한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에서의 과제난이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을 하고 학업성취에 큰 자신감을 갖는다.<sup>19)</sup> 이와 같이 자아효능감은 아동의 학업적 성취 및 집단내 바람직한 적응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이다. 나아가 자아효능감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성인들의 정신 위생적·심리적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가 된다. 더욱이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은 자녀의 자아효능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sup>20)</sup>되고 있어

14) 동국대학교 불교교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323-325쪽.

15) Bandura, *ibid*, pp. 122-147.

16) 박아청, 「자존감과 자기보호감 및 자기고양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분석」, 『교육심리연구』, 17(4), 2002, 257-282쪽.

17) Pintrich & Schrauben,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5).

18) Zimmermann & Martinez-Pons,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1990, pp.51-59.

19) Pintrich & DeGroot,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1990, pp 33-40.

20) 특히 아동의 자아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에 의한 평가, 칭찬이나 격려 같은 언어적 설득을 통하여 향상된다고 하며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효능감도 높다고 한다. 관련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박소영,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능력에

세대간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종교성과 신행 그리고 자아효능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련선행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그러나 한 개인의 종교성과 신행은 종교가 갖는 일상적 삶의 가치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과 관련되는 영역으로서 자기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인 자아효능감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즉 종교성은 실천적 종교행동인 신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구체적인 종교행위로서의 신행 경험은 자기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서의 자아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상북도의 2개 중소도시 중 대부분 중산층 가정의 유아들이 주로 재원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4개소의 어머니들 157명이었다. 최초 배포한 질문지 250부 중 미회수, 무성의한 응답 등으로 인해 157부만이 최종 분석자료가 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하위요인         | 빈도  | 백분율(%) |
|-----|--------------|-----|--------|
| 연령  | 30세이하        | 9   | 5.7    |
|     | 31~35세       | 55  | 34.8   |
|     | 36~40세       | 83  | 52.5   |
|     | 41세이상        | 11  | 7.0    |
| 학력  | 고졸 이하        | 45  | 28.7   |
|     | 전문대 졸        | 56  | 35.7   |
|     | 대졸 이상        | 56  | 35.7   |
| 총수입 | 200만원 미만     | 10  | 6.5    |
|     | 200~300만원 미만 | 49  | 31.8   |
|     | 300~400만원 미만 | 54  | 35.1   |
|     | 400~500만원 미만 | 27  | 17.5   |
|     | 500만원 이상     | 14  | 9.1    |
| 직업  | 유            | 50  | 31.6   |
|     | 무            | 108 | 68.4   |
| 佛子  | 불자(佛子)       | 108 | 68.4   |
|     | 비불자(非佛子)     | 50  | 31.6   |

## 2. 측정도구

### 1) 종교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종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찬<sup>21)</sup>이 Hood<sup>22)</sup>의 종교성향 연구를 기초로 개발한 종교성척도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문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향적 성향과 외향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향적 성향이란 종교에서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의를 충실히 따르는 종교성인 반면, 외향적 성향은 사회적 지위와 대인적 친목 등의 도구적 목적으로 종교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종교적 성향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평정척도의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채점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총점수 산출범위는 19점~9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하위 척도가 측정하는 종교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종교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를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종교성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 종교성    | 문항번호                                 | 문항 수 | 신뢰도  |
|--------|--------------------------------------|------|------|
| 내향적 성향 | 3, 5, 6, 10, 13, 16, 17, 20          | 8    | .796 |
| 외향적 성향 | 1, 2, 4, 7, 8, 9, 11, 12, 14, 18, 19 | 11   | .620 |
| 전체 종교성 |                                      | 19   | .820 |

### 2) 신행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불교신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혜순<sup>23)</sup>의 신행척도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즉 실제적인 신행을 평가하기 위해 김혜순의 신행척도의 문항내용을 기초로 불교의 실천적 근본 교리인 육바라밀의 하위유목들에 근거해 다시 구성하였다. 일차로 구성된 본 척도는 불교유아교육학 관련 교수 1인과 스님 1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완성하였다. 본 척도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가지 하위요인을 갖고 있다. 각 하위영역의 개념적 정의를 각각 살펴보면, 먼저 보시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일이다. 지계는 계를 지키는 것이다. 인욕은 남에게 헐뜯기고 욕을 당해도 노여움과 원한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정진은 어떠한 수행 여건에도 매진하는 노력과 한

21) 허 찬, 『종교성향,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2) Hood R. W. Jr., “Religious Orientation and the Report of religious Experien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9(4), 1970.

23) 김혜순 『신행(信行)의 이사(理事)가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찰소속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종교교육연구』제 25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노력이다. 선정은 마음의 동요와 산란을 그치고 항상 평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혜는 샅된 견해와 샅된 지를 떠난 완전한 지이다. 본 척도는 총 40문항이고 Likert식 5점 평정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채점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척도가 측정하는 신행이 높다고 해석한다. 총점수 산출범위는 40점~200점이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신행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 신행               |    | 문항번호                           | 문항 수 | 신뢰도  |
|------------------|----|--------------------------------|------|------|
| 육<br>바<br>라<br>밀 | 보시 | 1, 2, 16, 20, 21, 23, 36       | 7    | .721 |
|                  | 지계 | 3, 4, 6, 8, 14, 15, 17, 28, 35 | 9    | .715 |
|                  | 인욕 | 5, 7, 12, 29, 38               | 5    | .730 |
|                  | 정진 | 9, 13, 22, 26, 27, 32, 39      | 7    | .830 |
|                  | 선정 | 10, 11, 18, 25, 30, 37         | 6    | .807 |
|                  | 지혜 | 19, 24, 31, 33, 34, 40         | 6    | .811 |
| 전체               |    |                                | 40   | .938 |

### 3) 자아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자아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rer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자아 효능감 척도<sup>24)</sup>’를 홍혜영<sup>25)</sup>이 번안한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 자아효능감(Social self efficacy)과 일반적 자아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자아효능감이란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는 자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 자아 효능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척도는 총 23문항이고, Likert식 5점 평정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채점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총점수 산출범위는 23점~11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척도가 측정하는 자아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와 문항 수, 신뢰도 값은 다음의 <표 4>에 나타나 있다.

24) Sherer, et al.,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Psychological Validation*, Reports, 51, 1982, pp. 663-671.

25) 홍혜영, 『완벽주의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 5-35.

〈표 4〉 자아효능감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 자아효능감     | 문항번호                                                          | 문항 수 | 신뢰도  |
|-----------|---------------------------------------------------------------|------|------|
| 일반적 자아효능감 | 1, 2, 3, 5, 6, 8, 9, 11, 12<br>13, 15, 16, 17, 19, 20, 22, 23 | 17   | .845 |
| 사회적 자아효능감 | 4, 7, 10, 14, 18, 21                                          | 6    | .670 |
| 전 체       |                                                               | 23   | .875 |

\* 일반적 자아효능감의 2, 5, 6, 8, 9, 13, 15, 16, 19, 22, 23

\* 사회적 자아효능감의 4, 10, 18는 역산 문항임.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최초 구성한 질문지로 어머니들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고, 예비조사의 결과가 반영된 최종 질문지로 본 조사를 2008년 7월초에서 8월말까지 시행하였다. 질문지는 불교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어머니들에게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최초 배포한 질문지는 250부였으나 미회수, 무성의한 응답 등으로 인해 157부만이 최종 분석자료가 되었다. 질문지 최초 배부 대비 회수율은 62.8%였다.

연구문제별로 자료분석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연구대상자의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두 번째 연구문제인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종교성이 신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 연구문제인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이후 단계선택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Ⅳ. 연구결과 및 해석

### 1.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경향성

어머니들의 종교성, 신행 그리고 자아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의하면, 종교성 척도가 5점 척도로서 중앙값이 평균인 3점임을

감안하면, 내향적 성향은 2.86으로 평균보다 비교적 낮았으며, 외향적 성향은 3.20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신행에서는 지계가 3.51로 가장 높았으며, 지혜 3.48, 인욕 3.19순으로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 하지만, 보시는 2.62, 정진 2.38, 선정은 2.69로 나타나 모두 평균수준 이하였다. 자아효능감에서 일반적 자아효능감은 3.55, 사회적 자아효능감은 3.36으로 나타나, 자아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경향성

| 변인               | 하위요인      | M    | SD   |
|------------------|-----------|------|------|
| 종교성<br>(宗教性)     | 내향적성향     | 2.86 | 0.67 |
|                  | 외향적성향     | 3.20 | 0.47 |
| 신행(信行)           | 보시(普施)    | 2.62 | 0.69 |
|                  | 지계(持戒)    | 3.51 | 0.60 |
|                  | 인욕(忍辱)    | 3.19 | 0.66 |
|                  | 정진(精進)    | 2.38 | 0.80 |
|                  | 선정(禪定)    | 2.69 | 0.75 |
|                  | 지혜(知慧)    | 3.48 | 0.82 |
| 자아효능감<br>(自我效能感) | 일반적 자아효능감 | 3.55 | 0.57 |
|                  | 사회적 자아효능감 | 3.36 | 0.66 |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들이 종교 본연의 의미를 추구하는 내향적 종교성향보다 사회적 관계추구의 외향적 성향을 좀 더 갖고 있으며, 신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계를 지키려는 신행, 지혜를 얻고자 하는 신행, 그리고 참기 힘든 모욕이나 고통을 이겨내려는 인욕을 추구하는 반면 꾸준한 정진 신행이나 보시 신행은 약하다고 하겠다. 한편, 어머니들의 자아효능감은 모두 평균이상으로 나타나 일상에서 부딪히는 일들에 대한 스스로의 대처능력을 양호하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겠다.

## 2.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 차이

### 1) 연령에 따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차이

어머니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그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들만을 〈표 6〉으로 정리하였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내향적 성향( $p = .000 < .001$ ), 외향적 성향( $p = .016 < .05$ ), 보시( $p = .003 < .01$ ), 지계( $p = .038 < .05$ ), 정진( $p = .020 < .05$ ), 지혜( $p = .002 < .01$ )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연구결과들에 대한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내향적성향은 41세 이상이 3.68로 40세 이하보다 모두 높았으며, 외향적성향은 41세 이상이 3.55로 30세 이하의 2.98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시는 41세 이상이 3.34로 가장 높았으며, 정진은 41세 이상이 3.00으로 30세 이하의 2.00보다 높았다. 지혜는 역시 41세 이상이 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41세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6〉 연령에 따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 차이 분석

| 변인     | 30세 이하<br>M±SD | 31~35세<br>M±SD | 36~40세<br>M±SD | 41세 이상<br>M±SD | F     | p       |
|--------|----------------|----------------|----------------|----------------|-------|---------|
| 내향적 성향 | 2.56±0.67 b    | 2.79±0.60 b    | 2.83±0.65 b    | 3.68±0.74 a    | 7.006 | .000*** |
| 외향적 성향 | 2.98±0.33 b    | 3.25±0.44ab    | 3.15±0.46ab    | 3.55±0.61 a    | 3.545 | .016*   |
| 보시(普施) | 2.68±0.41 b    | 2.51±0.67 b    | 2.59±0.65 b    | 3.34±0.86 a    | 4.856 | .003**  |
| 지계(持戒) | 3.56±0.40      | 3.49±0.56      | 3.44±0.63      | 4.00±0.62      | 2.870 | .038*   |
| 정진(精進) | 2.00±0.84 b    | 2.28±0.74ab    | 2.40±0.76ab    | 3.00±1.00 a    | 3.389 | .020*   |
| 지혜(知慧) | 3.19±0.87 b    | 3.38±0.72 b    | 3.46±0.81 b    | 4.33±0.83 a    | 5.049 | .002**  |

※Scheffe의 사후검정 : 같은 문자가 있는 열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alpha = .05$ ).

\*  $p < .05$  \*\*  $p < .01$  \*\*\*  $p < .001$

본 결과는 어머니들의 종교성 중 내향적 성향은 41세 이상 연령층이 나머지 연령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외향적 성향 역시 41세 이상 연령층이 30세 이하 연령층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외향적 종교성향은 31세~40세까지의 어머니들에게는 뚜렷하지 않다가 41세 이상이 되어야 30세 이하 집단과 유의한 차이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연령에 따른 신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보시, 지계, 정진, 지혜에 관한 사후검정에서는 지계가 빠진 보시, 정진, 지혜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진에서는 41세 이상의 연령층과 30세 이하의 연령층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보시, 지혜에서는 41세 이상의 연령층과 나머지 전 연령층이 구분되는 신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요약하면 41세 이상 연령층은 종교성과 신행에서 모두 그 아래 연령층 집단들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의미 있는 연령집단이라고 하겠다.

## 2) 학력에 따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차이

어머니들의 학력에 따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그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들만을 〈표 7〉로 정리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외향적 성향( $p = .006 < .01$ ), 인욕( $p = .020 < .05$ ), 선정( $p = .042 < .05$ ), 지혜( $p = .047 < .05$ )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머니 학력에 따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 차이 분석

| 변인     | 고졸 이하<br>M±SD | 전문대졸<br>M±SD | 대졸 이상<br>M±SD | F     | p      |
|--------|---------------|--------------|---------------|-------|--------|
| 외향적 성향 | 3.34±0.58 a   | 3.05±0.33 b  | 3.24±0.45 ab  | 5.212 | .006** |
| 인욕     | 3.34±0.74 a   | 2.99±0.55 b  | 3.24±0.66 ab  | 3.994 | .020*  |
| 선정     | 2.72±0.76     | 2.50±0.66    | 2.85±0.75     | 3.226 | .042*  |
| 지혜     | 3.46±0.87     | 3.29±0.70    | 3.68±0.85     | 3.117 | .047*  |

※Scheffe의 사후검정 : 같은 문자가 있는 열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alpha = .05$ ).

\*  $p < .05$  \*\*  $p < .01$  \*\*\*  $p < .001$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들에 관한 Scheffe의 사후검정 실시 결과, 고졸이하의 외향적 성향은 3.34로 전문대졸의 3.05보다 높았으며, 인욕 역시 고졸이하가 3.34로 전문대졸의 2.99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성과 신행에서 각 집단별 차이는 다만 고졸이하 어머니들과 전문대졸 어머니들 사이에서만 유의함을 의미한다. 고졸이하의 어머니들이 전문대졸 어머니들보다 사회적 관계에 비중을 좀 더 두는 외향적 종교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하겠으며 고졸 어머니들이 전문대졸 어머니들보다 신행 중 인욕을 좀 더 실천하고 있다고 하겠다.

### 3) 직업에 따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차이

어머니들의 직업에 따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그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들만을 〈표 8〉로 정리하였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내향적성향( $p = .002 < .01$ ), 보시( $p = .027 < .05$ )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의 내향적 종교성향은 3.75로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2.83보다 높았으며, 보시 역시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3.29로 없는 사람의 2.60보다 높았다. 따라서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이 직업이 없는 어머니들보다 종교에서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의를 충실히 따르는 내향적 종교성향을 더 갖고 있으며 보시를 더 많이 한다고 하겠다.

〈표 8〉 어머니 직업에 따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차이 분석

| 요인     | 직업 유<br>M±SD | 직업 무<br>M±SD | T     | p      |
|--------|--------------|--------------|-------|--------|
| 내향적 성향 | 3.75±0.67    | 2.83±0.66    | 3.073 | .002** |
| 보시     | 3.29±0.67    | 2.60±0.68    | 2.229 | .027*  |

\*  $p < .05$  \*\*  $p < .01$

## 4) 불자(佛子)여부에 따른 종교성, 수행, 자아효능감의 차이

어머니들의 불자여부에 따른 종교성, 수행,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그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들만을 <표 9>로 정리하였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자여부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내향적성향( $p=.000<.001$ ), 외향적성향( $p=.024<.05$ ), 보시( $p=.002<.01$ ), 지계( $p=.005<.01$ ), 인욕( $p=.000<.001$ ), 정진( $p=.000<.001$ ), 선정( $p=.003<.01$ ), 지혜( $p=.000<.001$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불자의 종교성 중 내향적 성향은 3.00으로 비불자의 2.56보다 높고, 외향적 성향 역시 불자가 3.26으로 비불자의 3.0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수행의 하위영역에서 불자집단의 보시는 2.72, 지계는 3.60, 인욕은 3.30, 정진 2.57, 선정 2.81, 지혜 3.70으로 모두 비불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에 불자가 비불자보다 종교성과 수행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아효능감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좀 더 풀이하면 어머니들의 불자여부는 자아효능감을 제외한 종교성과 수행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중 불자여부가 수행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점은 불자어머니들이 보다 실천적인 종교행동인 수행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예측되는 결과이다. 또한 불자여부가 종교성에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점 또한 예견되는 점이다. 그러나 불자여부에 따른 종교성의 차이에서 외향적 성향( $T=2.286$ ,  $p<.024^*$ )보다 내향적 성향( $T=4.045$ ,  $p<.000^{***}$ )에서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난 본 결과는 불자어머니들의 종교성은 외향적 성향보다는 내향적 성향에서 비불자들어머니들과 더 크게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것이며, 아울러 불교가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의를 충실히 따르는 내향적 특성을 갖고 있는 종교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lt;표 9&gt; 불자여부에 따른 종교성, 수행, 자아효능감의 차이 분석

| 하위요인   | 불자<br>M±SD | 비불자<br>M±SD | T     | p                   |
|--------|------------|-------------|-------|---------------------|
| 내향적 성향 | 3.00±0.66  | 2.56±0.61   | 4.045 | .000 <sup>***</sup> |
| 외향적 성향 | 3.26±0.49  | 3.08±0.41   | 2.286 | .024 <sup>*</sup>   |
| 보시     | 2.72±0.74  | 2.40±0.51   | 3.170 | .002 <sup>**</sup>  |
| 지계     | 3.60±0.60  | 3.31±0.58   | 2.848 | .005 <sup>**</sup>  |
| 인욕     | 3.30±0.68  | 2.93±0.53   | 3.720 | .000 <sup>***</sup> |
| 정진     | 2.57±0.81  | 1.95±0.58   | 4.795 | .000 <sup>***</sup> |
| 선정     | 2.81±0.78  | 2.44±0.59   | 2.991 | .003 <sup>**</sup>  |
| 지혜     | 3.70±0.78  | 3.01±0.71   | 5.324 | .000 <sup>***</sup> |

\*  $p<.05$  \*\*  $p<.01$  \*\*\*  $p<.001$

### 3. 종교성이 신행에 미치는 영향

종교성이 신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성은 신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종교성이 높을수록( $B = .812$ ) 신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성이 신행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0.7%로 나타났다.

보시에는 종교성 중 내향적 성향( $p < .001$ )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적 성향이 높을수록( $B = .547$ ) 보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성이 보시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7.5%로 나타났다. 지계에는 내향적 성향( $p < .05$ ), 외향적 성향( $p < .05$ )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내향적 성향이 높을수록( $B = .210$ ), 외향적 성향이 높을수록( $B = .302$ ) 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이 지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7.6%이었으며, 내향적 성향( $\beta = .235$ )이 외향적 성향( $\beta = .234$ ) 보다 지계를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욕은 내향적 성향이 높을수록( $B = .393$ ,  $p < .001$ ), 외향적 성향이 높을수록( $B = .277$ ,  $p < .05$ ) 인욕이 높아지며, 종교성이 인욕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9.5%로 나타났다. 내향적성향( $\beta = .402$ )이 외향적성향( $\beta = .197$ )보다 인욕에 더 높은 영향을 주었다. 정진에는 내향적성향이 높을수록( $B = .626$ ,  $p < .001$ ), 외향적성향이 높을수록( $B = .302$ ,  $p < .05$ ) 정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이 정진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2.9%이었으며, 내향적성향( $\beta = .532$ )이 외향적성향( $\beta = .177$ ) 보다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에는 내향적성향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p < .001$ ), 내향적성향이 높을수록( $B = .544$ ) 선정이 높아지며, 종교성이 선정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5.0%로 드러났다. 지혜에는 내향적 성향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p < .001$ ), 내향적성향이 높을수록( $B = .716$ ) 지혜가 높아지며, 종교성이 지혜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4.9%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종교성이 신행 전체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50.7%로 나타났고, 6가지 신행의 하위요인에서는 모두 비교적 큰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인 지계 17.6%에서부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지혜 44.9%까지였다. 이에 어머니들의 종교성은 스스로의 종교적 실천행동으로서의 신행에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10〉 종교성이 신행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B     | $\beta$ |     | $R^2$ | F       |     |
|------|--------|-------|---------|-----|-------|---------|-----|
| 신행   | 상수     | .514  |         |     |       |         |     |
|      | 종교성    | .812  | .712    | *** | .507  | 160.205 | *** |
| 보시   | 상수     | .517  |         |     |       |         |     |
|      | 내향적 성향 | .547  | .537    | *** | .375  | 46.541  | *** |
|      | 외향적 성향 | .168  | .114    |     |       |         |     |
| 지계   | 상수     | 1.936 |         | *** |       |         |     |
|      | 내향적 성향 | .210  | .235    | *   | .176  | 16.551  | *** |
|      | 외향적 성향 | .302  | .234    | *   |       |         |     |
| 인욕   | 상수     | 1.174 |         | *** |       |         |     |
|      | 내향적 성향 | .393  | .402    | *** | .295  | 32.382  | *** |
|      | 외향적 성향 | .277  | .197    | *   |       |         |     |
| 정진   | 상수     | -.381 |         | *** |       |         |     |
|      | 내향적 성향 | .626  | .532    | *** | .429  | 57.819  | *** |
|      | 외향적 성향 | .302  | .177    | *   |       |         |     |
| 선정   | 상수     | .393  |         |     |       |         |     |
|      | 내향적 성향 | .544  | .493    | *** | .350  | 41.692  | *** |
|      | 외향적 성향 | .231  | .145    |     |       |         |     |
| 지혜   | 상수     | .761  |         | *   |       |         |     |
|      | 내향적 성향 | .716  | .592    | *** | .449  | 62.758  | *** |
|      | 외향적 성향 | .208  | .119    |     |       |         |     |

\* p&lt;.05 \*\* p&lt;.01 \*\*\* p&lt;.001

#### 4.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 간의 관계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각 변인들간의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1〉에 나타나 있다.

〈표 11〉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
| a. 내향적 성향    | 1.0     |         |         |         |         |         |         |        |         |     |
| b. 외향적 성향    | .600*** | 1.0     |         |         |         |         |         |        |         |     |
| c. 보시        | .606*** | .436*** | 1.0     |         |         |         |         |        |         |     |
| d. 지계        | .375*** | .375*** | .500*** | 1.0     |         |         |         |        |         |     |
| e. 인욕        | .520*** | .438*** | .502*** | .647*** | 1.0     |         |         |        |         |     |
| f. 정진        | .640*** | .503*** | .729*** | .417*** | .521*** | 1.0     |         |        |         |     |
| g. 선정        | .580*** | .441*** | .680*** | .526*** | .714*** | .713*** | 1.0     |        |         |     |
| h. 지혜        | .663*** | .474*** | .569*** | .570*** | .531*** | .655*** | .564*** | 1.0    |         |     |
| i. 일반적 자아효능감 | .187*   | .097    | .247**  | .418*** | .394*** | .187*   | .411*** | .270** | 1.0     |     |
| j. 사회적 자아효능감 | .173*   | .090    | .280*** | .342*** | .296*** | .209**  | .363*** | .266** | .665*** | 1.0 |

\*\* p<.01 \*\*\* p<.001

종교성과 실행, 자아효능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위와 같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수는 모두 0.8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다중공선성

|        | 공차한계 | VIF   |
|--------|------|-------|
| 내향적 성향 | .375 | 2.669 |
| 외향적 성향 | .584 | 1.711 |
| 보시     | .361 | 2.767 |
| 지계     | .450 | 2.222 |
| 인욕     | .366 | 2.733 |
| 정진     | .307 | 3.253 |
| 선정     | .308 | 3.245 |
| 지혜     | .383 | 2.609 |

\*\* p<.01 \*\*\* p<.001

또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를 구한 결과가 〈표 12〉에 나타나 있다. 〈표 12〉에서 보듯이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우려할 필요 없이 다음단계로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다음의 <표 13>에 나타나 있다.

&lt;표 13&gt;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     | B     | $\beta$ |     | $R^2(\Delta R^2)$         | F      |     |
|--------------|-----|-------|---------|-----|---------------------------|--------|-----|
| 자아효능감        | 상수  | 2.595 |         | *** |                           |        |     |
|              | 종교성 | -.247 | -.227   | *   |                           | 18.060 | *** |
|              | 신행  | .540  | .568    | *** | .191                      |        |     |
| 일반적<br>자아효능감 | 상수  | 2.125 |         | *** |                           |        |     |
|              | 지계  | .278  | .295    | **  | .175                      | 32.253 | *** |
|              | 선정  | .320  | .419    | *** | .223(.048 <sup>**</sup> ) | 21.657 | *** |
|              | 정진  | -.172 | -.238   | *   | .251(.028 <sup>*</sup> )  | 19.760 | *** |
| 사회적<br>자아효능감 | 상수  | 1.950 |         | *** |                           |        |     |
|              | 선정  | .211  | .238    | **  | .128                      | 22.395 | *** |
|              | 지계  | .242  | .222    | *   | .163(.035 <sup>*</sup> )  | 14.748 | *** |

\* p&lt;.05 \*\* p&lt;.01 \*\*\* p&lt;.001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성(p<.05)과 신행(p<.001)은 전체 자아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이 낮을수록(B = -.247), 신행이 높을수록(B = .540) 자아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9.1%로 나타났다. 신행( $\beta$  = .568)이 종교성( $\beta$  = -.227) 보다 자아효능감에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서는, 지계(p<.01), 선정(p = <.001), 정진(p<.05)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계가 자아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7.5%이었으며, 선정은 4.8%, 정진은 2.8%로 나타나, 일반적 자아효능감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25.1%로 나타났다. 지계가 높아질수록(B = .278), 선정이 높아질수록(B = .320), 정진은 낮아질수록(B = -.172)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효능성을 주로 지각하는 일반적 자아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풀이하면 어머니들의 일반적 자아효능감 발달에는 실천적 종교행동으로의 구체적 행위인 신행만이 영향을 미치며, 신행 중에서는 지계, 선정은 긍정적으로, 정진은 부정적으로 일반적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과 신행이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도 종교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신행의 선정, 지계 순으로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정이 사회적 자아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8%, 지계는 3.5%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16.3%이었다. 선정이 높아질수록(B = .211), 지계가 높아질수록(B = .242)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아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종교성( $p < .05$ )과 신행( $p < .001$ )은 전체 자아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는 모두 종교성이 아니라 신행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이라고 하겠다. 또한 육바라밀의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모든 신행은 자아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특히 정진이 자아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아기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사찰소속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에서는, 전체 어머니들의 종교성이 내향적 성향보다는 외향적 성향이 좀 더 강했다. 즉 어머니들은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의를 충실히 따르는 종교성을 지니고 있기 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대인적 관계 개선 및 친목도모 등의 도구적 목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성을 좀 더 갖고 있었다. 신행은 계를 지키고자 하는 지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지혜, 인욕, 선정, 보시, 정진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계, 지혜, 인욕은 평균수준 이상이었고, 선정, 보시, 정진은 평균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신행에서 계를 지키는 것을 가장 잘 실천하고 다음으로 지혜, 인욕, 선정, 보시, 정진 순으로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끊임없는 수행적 노력에 대한 지표로 볼 수 있는 정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점은 어머니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행 중 지속적인 수행노력을 의미하는 정진에 대한 낮은 점수를 나타낸 본 결과는 앞서 어머니들의 종교성이 종교본연의 의미를 추구하는 내향적 성향보다 사회적 지위 및 대인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외향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종교활동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추구하는 외향적 성향을 지닐수록 실천적 종교행동으로서의 끊임없는 정진 등의 신행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아효능감에서는 두 하위요인 모두 평균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의 자아효능감이 양호하게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아효능감이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구체적 상황에서 한 개인이 행동을 조직화하고 이행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기 판단이라고 볼 때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스스로

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어머니들은 종교성이나 신행에 대한 자기평가보다는 자아효능감에 대하여 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어머니들의 연령, 학력, 직업여부, 불자여부에 따른 신행, 종교성, 자아효능감의 차이는 자아효능감을 제외한 종교성과 신행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중 41세 이상의 어머니 연령층은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종교성향으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의미있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보시, 지혜, 정진 등의 신행활동에서 다른 연령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시기임이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연령층에서 종교성향의 방향이 결정지어져 감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로서 종교교육과 신행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추후 고려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학력에서는 고졸 어머니들이 전문대졸 어머니들보다 구별되는 외향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욕은 좀 더 하고 있었다. 이는 고졸집단 어머니들의 종교성은 보다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해 이들을 위한 종교교육의 접근 방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또한 어머니들이 직업이 있을수록 직업이 없는 어머니들보다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의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내향적 종교성향이 강했으며, 또한 신행 중 보시를 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취업율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머니들의 직업 활동이 종교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그 실천을 추구하는 내향적 종교성향을 이끈다는 점에서 일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불자여부에 따른 어머니들의 종교성, 신행, 자아효능감의 차이분석에서는 자아효능감을 제외한 종교성과 신행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하였다. 즉 종교성의 내향적 성향과 외향적 성향 모두 불자들이 비불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내향성 차이가 외향성 차이보다 더욱 컸다. 신행에서도 불자들이 모두 비불자들보다 신행을 더 실천하고 있었다. 다시 풀이하면 이는 불자들인 경우 비불자보다 종교성이 강한 것이며, 아울러 불교가 기본적으로 외향적 종교성향보다는 내향적 종교성향에서 더 큰 특성이 있는 종교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종교성은 신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이 높을수록 신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성은 전체 신행에 대해 절반이상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좀 더 살펴보면 종교성이 신행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에서는 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진, 보시, 선정, 인욕, 지계 순이었다. 이들 중 지혜에서는 종교성 중 내향적 성향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진과 보시에서도 내향적 성향이 외향적 성향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종교성이 신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종교성 중 내향적 종교성향에 주로 의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결과에서 한 개인의 종교성이 구체적 신행으로 나타나는 힘은 결국 종교 본연의 의미를 추구하고 근본교의를 따르고자 하는 어머니들의 내향적 종교성에 주로 근거한다고 보겠다.

넷째, 종교성과 신행이 전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종교성은 약한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신행은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교성은 낮을수록 그리고 신행은 강할수록 전체 자아효능감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각각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모두 종교성이 아니라 신행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어머니들의 자아효능감 발달에는 주로 신행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신행 중에서는 지계, 선정은 긍정적으로, 정진은 부정적으로 일반적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지계가 높아질수록, 선정이 높아질수록, 정진은 낮아질수록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성을 지각한다고 보겠다. 육바라밀의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모든 신행은 자아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정진이 자아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결과는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끊임없는 지속적 수행 노력을 정진이라고 이해할 때 정진의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이 정진하고자 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수행능력에 좌절하면서 오히려 자아효능감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추론한다.

또한 종교성과 신행이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또한 종교성은 배제되고 신행의 선정, 지계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마음의 동요와 산란을 그치고 항상 평정하게 하는 선정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계를 지키려는 대승적 지계가 높아질수록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아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어머니들의 신행이 실천되고 무르익을수록 스스로의 자기행동에 대한 통제성을 갖게 되고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이 되며 아울러 타인과의 관계성을 돕는 사회적 기술 등이 발달되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서의 자아효능감이 발달된다고 하겠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들은 종교본연의 의미를 추구하는 내향적 종교성향보다는 사회적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외향적 종교성향이 좀 더 강하며, 신행 중에서는 계를 지키고자 하는 지계를 가장 잘하고, 자아효능감은 양호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어머니들의 연령층, 학력, 직업여부, 불자여부에 따른 종교성과 신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추후 종교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을 위해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셋째, 종교성은 신행의 하위요인들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또한 전체 신행에도 큰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어머니들의 종교성은 자신의 종교행동으로서의 구체적인 신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넷째, 종교성과 신행이 전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중에서는 종교성보다

신행이 보다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개인적 삶의 가치에 주는 영향력은 종교성 보다는 신행이 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불교유아교육적 측면에서 종교교육의 방향정립을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종교가 최상위의 정신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실천적 행위로서의 신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아효능감과 같은 일상 생활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장차 종교를 갖게 만들 수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종교성이 구체적인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에는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신행에는 절대적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정종교 및 범종교차원에서 모두 종교교육의 당위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종교성이 신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종교성과 신행 중에서는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성 함양이라는 목표를 갖는 종교교육은 유용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각 종파나 종교의 종교교육은 초종파적으로 또는 초종교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불교포교적 노력과 종교교육학의 발전에 공헌하는 기초연구로서의 의의가 있음을 믿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종교성과 신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모두 Likert식 평정척도였다. 이는 종교성과 신행이라는 매우 다층적이고 심오한 심리상태와 종교행동을 질문범위내의 응답범위로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을 연구한 선행연구물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설계에서 각 변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타당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주로 중산층 유아들이 교육받고 있는 불교유아교육기관에서 연구대상을 표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 되지 못한 점은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종교가 갖는 교육적 영향력이 일상적 삶의 주요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위에 언급한 여러 제한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설계로서 검증해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일반 유아교육기관과 불교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적 주제들과 유아교육적 주제들이 갖는 관련성이 비교·연구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은주, 「불교생명존중사상의 유아교육적 적용」 『아동권리연구』4(2) (서울: 한국 아동권리학회, 2000).
- 고진호,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위한 방향 탐색」 『종교교육학연구』제 2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김혜순, 「신행(信行)의 이사(理事)가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찰소속 유아교 육기관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종교교육연구』제 25권 (서울: 한국종교 교육학회, 2007)
- 김희수,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자아효능감」 『미래교육연구』제 17권 제 2호, 2004.
- 박소영,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아청, 「자존감과 자기보호감 및 자기고양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분석」 『교육심리연구』, 17(4), 2002,
- 박재연, 「종교성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사상의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2005).
- 정선일, 「어머니의 자아효능감과 자녀의 자아효능감의 관계」(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6).
- 홍혜영, 「완벽주의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허찬, 「종교성향,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岸本英夫, 박인재역, 『종교학』 (서울: 김영사, 1961).
- Allport, G. W.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37).
- Allport G. W. & Ross, J. M.,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967.
-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77.
- Fowler, J. W. "Studies of Faith Consciousnes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2, 1991.
- Gorsuch, R. L. & Aleshire, D. "Christian Faith and Ethic Prejudice: A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Research",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3, 1984.
- Hood R. W. Jr., "Religious Orientation and the Report of Religious Experien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9(4), 1970.
- Pintrich, P. R. & Schrauben,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5).
- Sherer M., Maddux, J.,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Jacobs, B., *the Self-Efficacy*

-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1982.
- Tillich, P. *Dynamic of Faith* (New York: Harper & Row, 1957).
- Zimmermann, B. J. & Martinez-Pons, M.,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1990.

---

원고접수: 2009년 1월 11일 1차심사: 1월 21일 게재승인일: 2월 2일

연구자 소개: 김혜순

① 전공: 아동학 / 소속: 동국대학교

② 관심영역: 불교유아교육, 유아교육연구동향, 부모교육

③ 주요논저: 신행의 이사가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선교이해도가 수행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지적능력,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 및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연구,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보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외 다수

④ E-mail: heidi77@dongguk.ac.kr

---

**Abstract**

**The Effects to Religiosity and Religious  
Practice on the Self-Efficacy  
- Centered on Mothers whose Preschoolers were  
Enrolled in Temples' Kindergarten -**

**Kim, Hyeso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religiosity and religious practice on their self-efficacy. The subjects were 175 mothers whose children were enrolled 5 Buddhist kindergartens which were located in Gyengsangbook-Do. Frequency, percentage, means, standard deviation, T-test, F-test, Pearson's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had the slightly strong religiosity of extrinsic than the religiosity of intrinsic. Also the mothers had showed the strongest practice in precepts of religion. And mothers showed a good self-efficacy.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t in the mothers' religiosity and the practice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ird, there was a strong effect of Mothers' religiosity on their religious practice.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mothers' religiosity and practice on their self-efficacy. To conclude, the religious education will be useful for the both religiosity enrichment and general education.

**Key words** : Religiosity, Practice, Self-efficacy